

춘향전과 여배우들 (괄호 안은 감독)

사진=한국영상자료원·열화당



**조미령**  
1955년 '춘향전' (이규환)



**최은희**  
1961년 '성춘향전' (신상옥)



**김지미**  
1961년 '춘향전' (홍성기)



**홍세미**  
1968년 '춘향' (김수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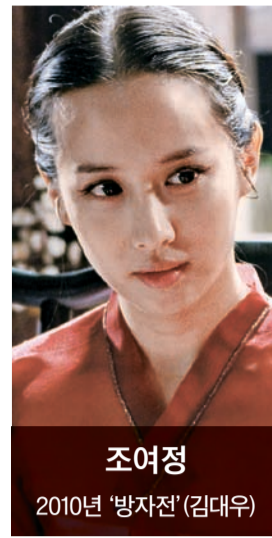
**문희**  
1971년 '춘향전' (이성구)



**장미희**  
1976년 '성춘향전' (박태원)



**이효정**  
2000년 '춘향전' (임권택)



**조여정**  
2010년 '방자전' (김대우)

국내 최초로 70mm 필름으로 촬영된 작품이기도 했다. 당시 다른 트로이카 여배우들이 모두 배역을 탐냈지만 결국 가장 한국적인 외모라는 이유로 문희에게 역이 돌아갔다 한다. 오디션을 통해 춘향이 된 배우로는 흥세미와 장미희가 있다. 흥세미는 2000대의 경쟁자를 뚫고 68년 '춘향'의 히로인이 됐다. 신인탤런트이던 장미희는 '성춘향전' 흥보를 위해 열린 춘향선발대회에서 1등을 했다. 76년 첫 영화인 '성춘향전'으로 그는 스타덤에 올랐다.

# 춘향을 돌아보라 ... 당대 최고 여배우가 보인다

## '성춘향' 50주년 신상옥 5주기 추모식

"신상옥 감독님은 늘 '필생의 작품을 찍어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죠. '성춘향'은 감독님이 평소 신조대로 혼신의 힘을 기울여 찍은 작품입니다. 제 연기에 한번도 스스로 만족한 적이 없었지만, '성춘향'은 참 자랑스러운 작품입니다." 12일 오후 서울 낙원동 허리우드클래식시네마. 신상옥(1926~2006) 감독이 연출한 '성춘향' (1961년) 50주년을 맞아 기념상영회와 5주기 추모식이 열렸다. 원로배우 신영균, 김수용·정진우·이장호·이두용 감독, 배우 최지희, 성우 오승룡·권희덕 등 원로 영화인 100여 명이 참석했다.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 정대철 민주당 고문도 함께했다.

극장 로비를 가득 메운 사람들을 헤치고 휠체어를 탄 신 감독의 부인 최은희(85)씨가 나타났다. 거동이 불편한 뿐 꽃꽂한 태도는 여전했다. 그는 "성춘향"을 찍을 때가 어제 같은데 벌써 50년이나니 그 감회를 뭐라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며 감격스러워 했다. 먼저 간 남편에 대해 "세월이 약"이란 말은 나한테 해당되지 않는 말 같다. 감독님이 가신 뒤로 하루도 잊고 살아본 날이 없다"고 말했다. 변영주·김태용·권철진·김대우 등 소장파 감독도 참석했다. 상영회는 300석이 꽂차는 성황을 이뤘다.

'성춘향'은 국내 최초의 컬러 시네마스코프(cinemascope)와이드스크린 방식의 대형영화다. 61년 명보·국제극장 등에서 74일간 장기 상영되며 38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는 '대박'을 터뜨렸다. 당시로서는 한국영화와 외화를 통틀어 최고 흥행기록이었다. 신 감독의 제작사 신필름은 이 영화의 성공으로 전성기를 열었다.

이날 상영회는 신필름 제작부도 연출에 임명한 이장호 감독(신상옥기념사업회 이사장)이 신 감독 5주기를 맞아 아이디어를 냈다. 68년 '춘향'을 연출했던 김수용 감독은 "'성춘향'은 최은희·김진규 캐스팅이 워낙 독보적이었고, 의상·소품은 물론 기술적으로도 매우 뛰어났던 작품"이라고 회고했다. 신상옥·최은희 부부의 아들인 신정균 감독은 "아버지가 두 번 만든 작품이 2편 있는데 '꿈'과 '성춘향'이다. 북에 계절 적에 '사랑 사랑 내 사랑'이란 제목의 뮤지컬 영화로 '성춘향'을 다시 만드셨다. 그 정도로 애착을 가졌던 작품"이라고 설명했다. 행사가 열린 허리우드클래식시네마도 이들 부부에게 뜻 깊은 곳이다. 신 감독이 극장을 인수한 후 최씨가 '허리우드'라는 이름을 지었다. "우리가 할리우드 못지 않은 좋은 작품을 만들어보자는" 바람에서였다.

독은 "아버지가 두 번 만든 작품이 2편 있는데 '꿈'과 '성춘향'이다. 북에 계절 적에 '사랑 사랑 내 사랑'이란 제목의 뮤지컬 영화로 '성춘향'을 다시 만드셨다. 그 정도로 애착을 가졌던 작품"이라고 설명했다. 행사가 열린 허리우드클래식시네마도 이들 부부에게 뜻 깊은 곳이다. 신 감독이 극장을 인수한 후 최씨가 '허리우드'라는 이름을 지었다. "우리가 할리우드 못지 않은 좋은 작품을 만들어보자는" 바람에서였다.

1961년 38만 관객 최고 흥행  
김지미와 맞대결 승리  
휠체어 타고 온 부인 최은희씨  
"남편은 늘 필생의 작품 추구"

◆춘향은 스타여배우의 계보= '춘향도 궁둥이 흔들 듯 한다'는 말이 있다. 몸을 뭉치 흔들 때 인용하는 말이다. 비유컨대 춘향은 한국 영화계를 흔들었다. 한국영상자료원에 따르면 '춘향전'은 1923년 이래 지금까지 15회 영화화됐다(제목에 '춘향'이 들어간 경우만 해당). 게다가 주인공 춘향은 당대 인기 절정을 구가하던 배우들이 많았다. 문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서구적 미모라



'성춘향' 50주년 기념상영회와 신상옥 감독 5주기 추모식에 영화인·일반인 300여 명이 참석했다. 왼쪽부터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 최은희 여사, 원로 배우 신영균·최지희씨, 이장호 감독, 안성식 기자

는 점도 역대 춘향이의 특징이다. 한국영화 사상 유례 없이 열흘 간격을 두고 개봉한 최은희의 '성춘향'과 김지미의 '춘향전'은 두 걸출한 여배우, 신상옥·홍성기 두 라이벌 감독의 대결로 '춘향전(戰)'이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다. 결과는 '성춘향'의 승(勝). 이공룡 역 신성일의 스타성은 물론, 도금봉(향단)·허장강(방자)의 감초연기, 화려한 색채 감 등에서 경쟁작을 압도했다.

윤정희·남정임과 '트로이카'를 이뤘던 문희도 춘향이었다. 71년 이성구 감독의 '춘향전'에서 신성일과 호흡을 맞췄다. 한

국 최초로 70mm 필름으로 촬영된 작품이기도 했다. 당시 다른 트로이카 여배우들이 모두 배역을 탐냈지만 결국 가장 한국적인 외모라는 이유로 문희에게 역이 돌아갔다 한다. 오디션을 통해 춘향이 된 배우로는 흥세미와 장미희가 있다. 흥세미는 2000대의 경쟁자를 뚫고 68년 '춘향'의 히로인이 됐다. 신인탤런트이던 장미희는 '성춘향전' 흥보를 위해 열린 춘향선발대회에서 1등을 했다. 76년 첫 영화인 '성춘향전'으로 그는 스타덤에 올랐다.

기선민 기자 murphy@joongang.co.kr

(공고 - 02호)  
**2011년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과제 시행 공고**

건설교통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건설교통분야 미래성장동력 창출 및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립된 「2011년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과제 시행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사업추진 근거**
  - 「건설기술관리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
  -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훈령)」,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건설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 사업단과제 관리지침」
- 2. 지원내용**

구분	과제명	당해년도 정부출연금
4핵심과제	LNG-FPSO 공정 응용기술 개발	6.50억원이내
5핵심과제	LNG-FPSO 플랜트 설계 및 건설기술 개발	6.50억원이내

  - 지역기술혁신사업 기획과제 3건

구분	과제명	당해년도 정부출연금
기획과제	권역별 테마발굴 연구기획(호남)	50백만원이내
기획과제	권역별 테마발굴 연구기획(제주)	50백만원이내
기획과제	권역별 테마발굴 연구기획(동남)	50백만원이내

※ 과제 연구내용, 연구비 등 상세내용은 「공고-02호」 2011년 건설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 과제 시행 공고 안내서와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3.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건설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 사업단과제 관리지침」, 「공고-02호」 2011년 건설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 과제 시행 공고 안내서,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건설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 사업단과제 관리지침」 참조
- 4. 신청자격**
  - 신청자격
    -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조에 의한 기관
  - ※ 연구인력 사전등록 기한내에 등록된 인원에 한하여 연구책임자(주관, 공동)로 신청 가능
-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서 제공: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홈페이지에 게재
  - 연구인력사전등록: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연구관리시스템 (<http://ctpass.kictep.re.kr>)
  - 접수방법: 신청서 접수마감일(11.5.9) 18:00까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 방문하여 신청서류 제출 및 접수
  - 접수장소: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2층 회의실(신청방임)
  - 신청서 접수일정

공고기간	연구인력사전등록	인터넷 입력	신청서 접수
'11.4.6(수) ~ 5.9(월) (33일)	'11.4.22(화) ~ 5.2(월) 18:00 까지	'11.4.28(월) ~ 5.8(월) 18:00 까지	'11.5.9(월) 18:00 까지
- 6. 사업설명회**
  - 사업설명회 일시: 2011. 4. 15(금) 15:00 ~
  - 사업설명회 장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왕동 1600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신청방임) 3층 1, 2회의실
- 7. 문의 및 기타**
  - 문의: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031-3896-내선번호, Fax: 031-381-9922)
  - 플랜트 기술 고도화 사업: 건설3실 권희상(449), 황호경(446)
  - 지역 기술 혁신 사업: 건설3실 이강준(447), 김소연(345)
  - 인터넷 입력 등 전산시스템 관련: 정보관리실 (408)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홈페이지 (<http://www.kictep.re.kr>) 「공고-02호」 2011년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과제 시행 공고 안내서,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건설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 사업단과제 관리지침」 참조

**2011년 4월 6일**  
**국토해양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화제의 책  
**IPTV 뉴비즈니스 혁명**  
70평생 명품 인장 국새·대통령인 조각 **주류인쇄** 2271-1001-7

**무료역학(지방도 가능)**  
기억법, 연상법으로 쉽게 공부한다.  
2주 무료청강후 결정!  
1회차: 4월 14일(목), 17일(일) 14시~17시  
2회차: 4월 20일(수), 24일(일) 14시~17시  
★1, 2회차 수업 들림, 각각 1회씩 편한 요일에 오세요.  
DVD강의(최고의 화질, 인터넷 전체화면, 멀리 계산분)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주소 "인당역학" 검색  
**인당역학 02) 929-6310**  
성북구 보문역(6호선)-5번출구-평강마을-K2부동산-스카이부동산-30미터 3층

**KOREA JOONGANG DAILY**  
In association with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광고 안내** 02)754-5566

**공고**  
분실  
부동산  
빌딩-상가  
원룸급매  
대지-임야  
땅땅땅!!!  
대전 자연 녹지 23,758㎡  
명당 묘지리의 다용도 매 6억3천, 저수지근접  
010-5262-3365

**독서-고시원**  
초역 사립의교회인근 고시원  
신축 32스프링 플러 급1억  
5천, 보증금+시설 010-3306-2803

**가락동 고시텔**  
방31개 만실 월수350이상 보장  
보6,000만 월세260만  
권리금 4천  
(부가세 및 관리비 별도)  
010-7997-4415  
※부동산 사절, 직거래 원함

**결혼상담소**  
열매 결혼  
초·재혼 공무원  
사립가  
VIP회원도·관점사  
의사전문지·부유층  
02)508-5262  
커플매니저구함 서울강남  
10-0010

**금용**  
법인 설립·증자·양도·양수  
010-2788-4272

**부동산 담보대출**  
APT, 주택, 빌라, 상가, 토지, 임야  
전세계약서 년12~36%  
당산동123 골드크레딧 0086  
2677-9195 영등포  
구영역

※ 투자 상담 (법적 보장) ※  
대부(돈)중개담보제공

**기념일 기부**  
소중한 사람의 특별한 날에  
나눔을 선물하세요!

**We Start** 02.318.5004 [www.westart.or.kr](http://www.westart.or.kr)  
희망의 새싹을 키우자